



스마트폰 전성시대 : 스마트폰은 편리하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스마트폰인 직장인 A씨의 이야기

- 아침: 알람으로 일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늘의 날씨를 확인한 후 거기에 맞는 옷을 골라 입는다.
- 출근길: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체크하고, 신호대기 중에는 틈틈이 뉴스를 보거나 e메일을 확인하며 하루 업무를 계획한다.
- 점심시간: 은행에 직접 가는 대신, 커피를 마시며 있는 곳에서 간단히 업무를 처리한다. 친구들과 볼 영화 예매도 잊지 않는다.
- 저녁: 메신저로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고, 낮에 예매해둔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집에 가는 길: 좀 전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룹칼럼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6기 4조 (김락현, 김소영, 김수연, 신경아, 유혜영)

바야흐로 스마트폰 사용자 2천만 시대. ‘전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폰의 등장은 IT 업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소비, 생활 방식에서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일기예보 확인, 이메일 체크, 동영상 감상, 제품 조사 및 구매, 상점 바코드 스캔, 쿠폰 다운로드, 독서, 게임, 도로교통 정보 확인, 뉴스 검색, 소셜 네트워킹, 영화 표 예매... 등등 생활 전반의 해결사가 되어 버렸다. 최근 이러한 열풍을 증명하듯, ‘모바일 정보를 생활화한 현대인’이라는 의미를 담은 ‘호모 모빌리스(Homo Mobilis)’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그 작은 화면 안으로 깊이 끌어당기며 현대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요즘 장소 불문하고 그 화면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친구와 밥을 먹을 때에도, 대화 중에도 예외는 없다. 늘 손이 닿는 곳에 놓고는 시시때때로 확인한다. 메시지가 오면 즉답해 주는 건 기본이다. 상대방과는 눈도 맞추지 않으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신의 독특한 휴대용 컴퓨터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는 점점 줄어든다.

미국의 한 뉴스 웹사이트인 'ArchNewsNow'의 어느 조사 결과가 놀랍다. 도시화, 즉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고, 통계학적으로 인구 밀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람 간의 교제는 10% 감소한다는 보도였다. 남의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 간의 공간적 거리가 좁을 때 가깝고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다수의 낯선 사람들로부터 사생활을 지키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극심한 도시화 속에서는 마땅한 피난처 찾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 그런 중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사람들에게

는 시대가 된 건가? 스마트폰이 편하고 도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과연 사람을 '이롭게'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신 있게 "Yes"라 말하기가 망설여진다.

스마트폰을 넘어서

인류 역사와 함께 과학기술은 진보하였고, 앞으로도 이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리다가 '탈스마트폰화'된 삶의 방식이 구시대적인 낡은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서류에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사는 이들이 있다. 그것도 더 큰 이익을 누리면서 말이다.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야 한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천국 확장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가뭇에 단비와 같은 탈출구인 셈이었다. 다소 번거롭고 부담되기까지 하는 현실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모바일 채팅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관계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식적일 필요도 없고, 더 솔직해질 수 있다며 반색하기도 한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가상세계. 그 곳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하며 혼자라도 충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

달라진 건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초고속 시대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모른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3G 네트워크가 느리다며 불평하고,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가면 될 걸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불만이다. 편리함은 조급함으로, 조급함은 다시 짜증으로 바뀌며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삶에서 여유를 누리면 손해 보

출근 중인 직장인 B씨. 요새는 야근이 잦아 허겁지겁 지하철을 탄다. 두 세 정거장 정도 지나서야 정신이 좀 들자, 어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생각났다. 인터넷과 SNS 어플을 켜서 당장 업무 처리를 하고 싶지만 스마트폰 고장으로 불가능하다. 답답하고 짜증만 난다. 하지만 오랜만에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 이내 머릿속으로 할 일의 목록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하철의 진동, 눈부신 한강과 사람들의 출근 풍경 역시 새삼스레 반갑다.

여대생 B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동안 멀어졌던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했다. 고등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다, 아예 날을 정해 만나기로 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얼굴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예전처럼 같이 밥 먹고, 커피도 한 잔 하

며 눈을 맞추며 웃고 떠들 것이다. 함께 모일 그 시간이 정말 기대된다.

스마트폰의 빈자리에 조금함과 짜증을 넘어 불안이 들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천금 같은 시간을 누릴 수도 있다. 자연과 사람이 살아가는 풍경,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시선을 이끈다. 직접 이어지는 만남은 생동감과 진지함을 준다.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 목소리를 기억하고 오감으로 소통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똑똑하다.’라는 스마트의 의미는, 한자어로 ‘지혜롭다.’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란,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잠9:10)이라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그 답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맺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와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창2:18) 보이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사람들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실 것만 같다. ‘함께’는 중요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에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비로소 나타난 비밀인 ‘교회’가 이것을 증명한다.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 몸된 교회는 ‘

다 함께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 본래 사람의 모습은 매우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맺어지는 끈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고,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라고 하셨다. 기기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한 게 있을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삶의 중심에 놓자. 그러면 도구를 내려놓아야 할 때와 활용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만 손에 쥐고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할 것 같은가? 예배 때도 성령님이 스마트폰으로 임재하실 것 같은가? 내가 이런 저런 구실을 찾으며 관계 맺는 걸 회피하려 한다면, 과감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한다. 피하고 싶더라도 공동체와 부대껴야 한다. 한편 SNS를 나눔과 교제의 통로로 적극 이용하면 실시간 중보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스마트폰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엡4:3)’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생활을 돕는 어플리케이션도 참 많다. 이를 통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야 한다. 그럴 때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천국 확장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엡4:13)’ 것이 가능해지리라.

* 롬12:4~5, 고전10:17, 고전12:12~13, 엡2:16, 골3:15

** 행2:44, 행 2:46